



창간 13주년에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월간양돈이 창간 13돌을 맞이하였다. 지난 13년간 월간양돈은 우리나라 양돈업과 함께 하여왔고, 업계의 거울로써,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1979년 양돈업이 어려울때 태어나서 그동안 많은 영욕의 세월을 거쳐 오늘의 월간양돈으로 성장하였다.

지난 13년간 양돈업이 양이나 질에서 성장을 하였지만 이제 다시 수입개방 물결로 13년 전과는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려움을 참고 극복하는 힘은 희망을 갖는데서 나온다. 지금까지 양돈업이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때 그때 희망과 용기를 주는데 월간양돈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양돈업의 위기는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불황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는 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약한데서 오는 희망 상실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양돈업의 대를 이을 후계자도 적은 데다 인력난은 물론, 분노처리문제로 불안한 생활을 하게 하는 등 희망을 뺏어가는데 문제가 있다.

2차대전 중 독일의 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 유대인들을 수용한 수용소였는데 특별한 이유없이 새해를 맞으면서 시름시름 죽어간 것이다. 원인을 조사해보니 크리스마스 특사로 석방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었는데 이것이 상실해서 죽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먹고 산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우리는 축산 생산자재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양돈장 시설개선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면 경쟁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투자를 한다. 이러한 희망을 주는 기사를 많이 게재코저 한다. 기술정보, 경영정보를 폭넓게 공급하므로써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고, 생산물을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생산비를 낮추고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는 양돈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정부나 협동조합, 협회가 해야 할 일로 나뉘어진다. 양돈농가가 아직도 규모가 적고 영세하여 정부가 담당해야

66

오늘날 양돈업의 위기는
 가격이 떨어져서 생기는 불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입개방이 기정사실화 되는데도
 이에대한 대책이 미약한데서 오는 희망상실이 더 큰 문제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먹고 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간양돈은 양돈인들에게 사행심이 아닌
 올바른 희망을 줄수 있는 유익한 국내외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이제
 부터의 더 큰임무라고 생각한다.

99

할 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희망을 잃어가게 된다.

양돈농가도 이제는 돼지 한 마리가 18만원이
 되기를 바라는 허황된 희망은 갖지 않는다. 폭리
 를 취하는 호황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돼지 한 마리 기르면 생산비 이상이 보장되고
 1996년도에는 양돈농가도 1인당 소득이 10,000
 \$이 되어 중류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소박한 희
 망을 가지고 산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2천년대의
 축산발전장기대책의 청사진이 이루어질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러한 희망이 가시화 되기
 위해서 우선 다음 몇가지 일들이 금년내에 이루
 어져야 한다.

첫째, 축산 생산자제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
 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감법, 관세법의 개정과
 둘째, 앞으로 UR협상 타결후를 위해서도 자조금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독립법으로 입법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루어지지 않고서는 많은 말을 하여도 양축농가
 들이 앞날에 희망을 갖기는 힘들다.

최근 경제가 어렵고 범죄와의 전쟁 등 불안한

치안으로 온국민이 걱정하지만, 양축농가들의 불
 안은 “생업을 계속하느냐 마느냐”하는 중대한
 것이다.

이번 정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 3억원짜
 리 복권을 발매한다고 한다. 과거, 1억짜리 주택
 복권이나 올림픽복권으로는 안되기에 이번 복권
 금액을 대폭 인상했다.

나도 복권당첨만 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
 망을 줄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요행심을 믿고 복
 권당첨에 희망을 두고 사는 것처럼 불쌍한 일은
 없다.

축산도 복권 당첨식의 출하때 가격 폭등을 바
 라는 축산으로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복권의 금액을 높이기 보다는 차근 차근 신뢰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양축가의 숙원이
 이루어질 때 양축농가는 희망을 갖게된다. 월
 간양돈은 양돈인들에게 사행심이 아닌 올바른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익한 국내외 정보를 계속
 제공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더 큰 임무라고 생각
 한다.

양돈인들의 많은 협조가 이러한 일들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